

중기부, AI 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 현장 의견으로 정책 완성도 높인다

- 중기부 제1차관, (주)뤼튼테크놀로지스에서 AI 스타트업과 현장 간담회
-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 중인 「AI 스타트업 유니콘 성장 전략」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10월 29일(목) 인공지능(이하 AI) 유니콘 기업인 (주)뤼튼테크놀로지스에서 「AI 스타트업 유니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부가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함께 올해 초부터 준비해 온 「AI 스타트업 유니콘 성장 전략」의 초안을 바탕으로, 실제 AI 스타트업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10.29(목) 14:00~15:30 / (주)뤼튼테크놀로지스 (서울 서초구)
- ▶ (참석자) 제1차관, AI 스타트업 대표,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원, 전문가 등
- ▶ (주요내용) 유니콘 성장 스토리 발표(뤼튼), 유니콘 성장 전략 의견 청취 등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술 선점과 신속한 사업화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AI 스타트업은 이 중심에서 독보적 기술과 과감한 발상으로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혁신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발굴부터 도약까지 전주기 지원 ▲혁신 성장 가속화 ▲글로벌 시장 도약 촉진 등의 과제를 마련하여 AI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AI 스타트업 유니콘 성장 전략」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8월에 유니콘으로 등극한 (주)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장 스토리 공유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정책토론에서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AI 스타트업의 기술실증 및 정부·공공기관 구매 연계 확대 ▲국내·외 투자자와 투자유치 연결 강화 등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존 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기부는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에 반영하고,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것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중기부도 AI 스타트업의 도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져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호 (044-204-7640)
		담당자	사무관	박종선 (044-204-7683)
			주무관	김경은 (044-204-7650)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딥테크전략실	책임자	실 장	이명종 (044-410-1680)
		담당자	과 장	김경진 (044-410-1691)
			대 리	하상준 (044-410-1689)